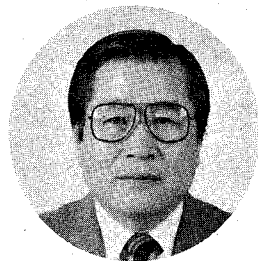


“우리모두 RI 이용分野에 다시 눈을 돌리자!”



漢陽綜合檢査株式會社
代表理事 蔡和默
當協會理事

今年이 1990年으로 20世紀의 日没에서 새로운 21世紀 黎明을 맞는 地球歷史의 새로운 章이 펼쳐지는 時期이다. 人類는 새로운 希望과 期待 그리고 그것을 위한 挑戰을 꾸준히 준비하고 있다. 이 塊의 大部分을 20世紀 科學文明의 精髓였던 原子力이 次世紀에 까지도 勘當하지 않으면 안 될것이다.

地球村의 하나인 우리나라도 이 塊의 一部를 떠 안는 壯大한 快樂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본다.

1950年代에 들어 우리의 原子力은 文敎部에 原子力課를 新設하여 그 末葉에 原子力院을 政府의 1個部處로 탄생시키고 巨大한 科學技術政策을 樹立함으로서 科學-原子力 開發의 立志를 꾀했고, 爲政者의 科學立國의 野心이 야말로 賢明한 先見之明이었음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原子力의 利用을 크게 나누어 放射性同位元素의 利用과 原子力發電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原子力利用研究는 亦是 放射線 및 放射性同位元素利用이 長子이고, 原子力發電이 次子인 셈이다. 三子格인 核融合利用은 孕胎를 기다리는 段階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설마하니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核家族制度에 順應하여 斷産計劃을 한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우리나라의 경우 次子の 運身의 幅에 가려 長子の 立場은 微小하게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그 兄弟가 나란히 成長하고 運身하는 모

습을 보는것을 世上父母들은 所願할 것이다.

오늘날에 와서는 RI의 利用이 民間産業에 까지 널리 利用되고 있으며 1960年代初의 微小했던것에 比하면 數百倍의 質과 量的인 成長을 하였다. 물론 이를 主導한 것은 唯一하게 손꼽아 韓國原子力研究所를 들 수 있고 그 다음으로 當時의 放射線醫學研究所(現在の 原子力病院)와 放射線農學研究所(기구개편으로 흡수 통합됨)를 포함 시켜야 한다. 放射性同位元素의 利用方法은 大別하여 追跡子, 計測, 透過作用의 세 部分을 들 수 있겠고, 그 利用分野는 工業, 醫學, 農學 등 거의 모든 分野에 걸쳐 活發하게 利用되고 있다.

첫째, 不透明體를 透過하는 原理

둘째, 物質에 對한 物理的, 化學的作用原理

셋째, 放射線標識에 依한 物質의 運動經路를 追跡하는 原理등이 主로 利用되고 있으며 工業的으로는 非破壞檢査, 두께測定, 準位測定 등으로 나눌 수 있다. 醫學과 農學分野의 利用亦是 이러한 方法을 利用하여 이 分野技術이 高度로 發達되었다. 그 밖에 工業的으로 期待되는것은 放射線照射利用分野로 放射線에 依한 分解, 이온重合, graft 重合, 架橋反應등의 諸反應, 酸化反應과 할로겐화反應등 高分子化工分野에의 利用이 進拓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放射性同位元素協會가 설립됨으로써 國內的으로는 産學및 政府와의 架橋

役割이 시작되었고, 국제적으로는 해외 관련 기관과의 技術協力協定을 체결하는등 정부의 뒷받침에 힘입어 이 나라의 RI 利用增進을 위하여 부단히 애써오고 있다. 일은 벌이고보면 할일이 생기게 마련이지만 韓國放射性同位元素協會가 할 일은 너무 많은 대신 그에 所要되는 豫算과 人力은 너무나 貧弱한 것이 안타깝게만 여겨진다.

가까운 日本國의 경우 日本同位元素協會가 설립된지는 우리의 경우 보다 빨랐던 것은 사실이지만 協會本部의 건물과 자산, 그리고 산하에 두개의 研究所는 실로 政府支援과 民間業體, 그리고 學界 및 研究機關의 적극적인 참여와 엄청난 재정적인 支援이 있었다. 1989년 6월 현재 同協會의 총자산은 말할 필요가 없거니와 放射性廢棄物處理 경비만도 約37億圓(韓貨 約260億圓)을 豫受하여 銀行에 積置해 놓고있는 상태라고 하니 우리로서는 꿈같은 이야기이고, 부럽기도 하여 우리처지가 너무나 초라하기만 한것 같다.

따라서 불과 5년여밖에 되지않은 本會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科學技術處를 中心으로 한 相關기관과의 積極적이고 大폭적인 支援이 있어야 할 것이며, 우리會員 모두가 부단한 努力과 自己犧牲精神을 倍加하여 協會의 發展을 위해 많은 協力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